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5호

제33회 파리 올림픽

역대 하계올림픽 선수 규모, 구기종목 출전 현황

김민지 연합뉴스기자

종전 만 29세 이미림 기록 경신...2006년에는 LET 최연소 우승 기록도 세워

양희영, 역대 한국 선수 첫 30대 여자 골프 메이저 챔피언

김동찬 연합뉴스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규탄 성명 발표

경기단체연합회, "유인촌 장관이 체육계 분열 조장"

권종오 SBS 기자

대한빙산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여자 피겨 국대가 후배 성추행...불법촬영한 선수도 적발

정민아 MBN 기자

[세종로의 아침]

제주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이 파견되는 이유

이제훈 서울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회원 소식



체육시민연대 고광현 고문께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첫날 '경계, 스밈과 얽힘'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하셨다. 스포츠가 가진 세상을 바꾸는 힘을 연대와 저항이라는 키워드로 짚어냈다. 양양 솔비치 호텔 컨벤션센터에 모인 250 여명의 학회원에게 뜻깊은 통찰의 시간이었다.

자료 출처: 사단법인 및 제2학술지 발간기념 2024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6월 24일(월) ~ 25일(화), 솔비치 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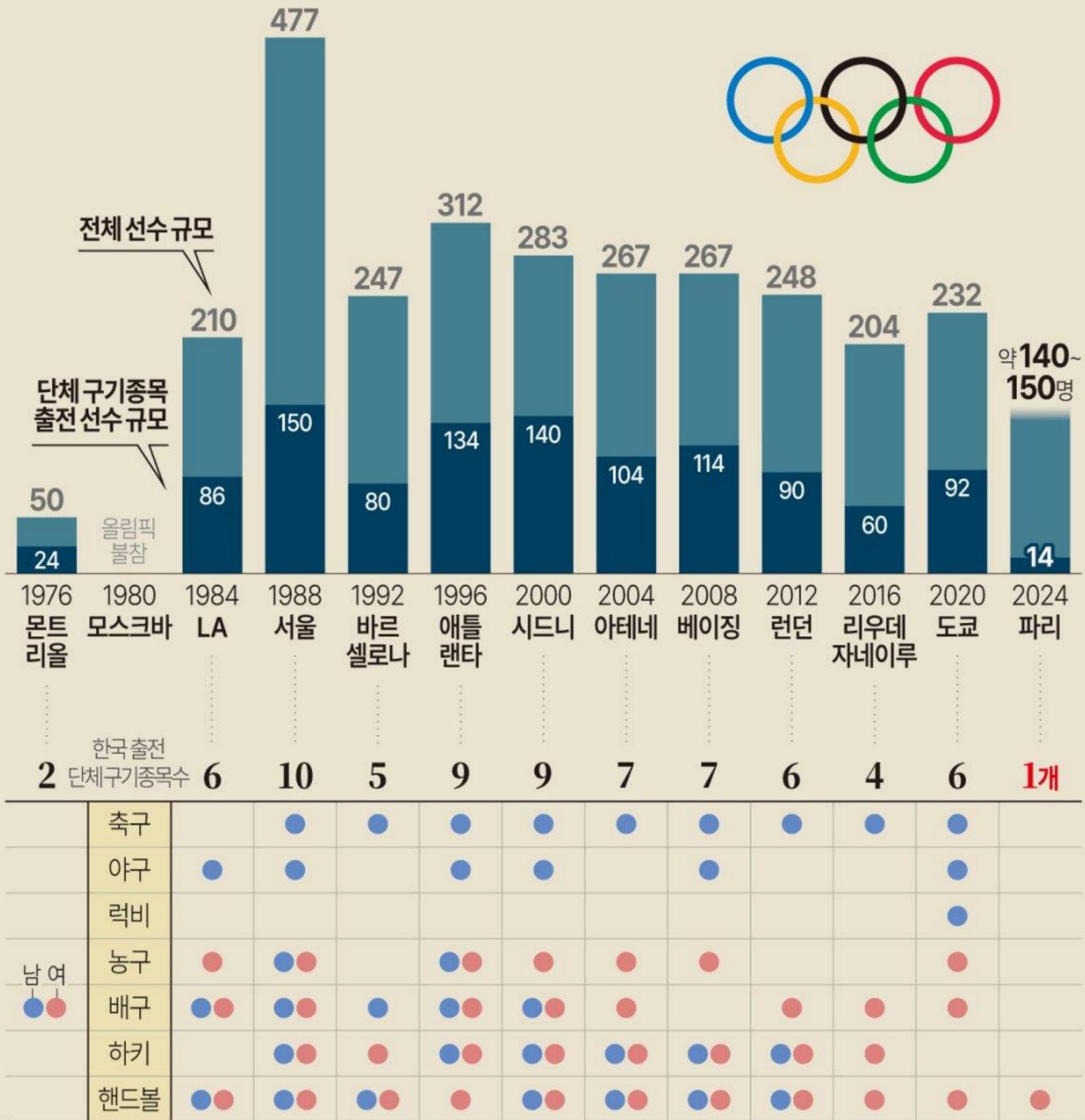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주원홍 회장은 연말까지 28대의 남은 임기와 29대 회장 4년 임기까지 테니스협회를 이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주원홍 회장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증권 테니스단 감독을 지내며 이형택 등 투어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키워냈다. 2013~2016년에는 테니스협회장을 역임했다.

자료 출처: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03/0012624933>



2024 파리 올림픽

역대 하계 올림픽 선수 규모·구기종목 출전 현황



*기재된 종목 외에도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에는 수구, 비치발리볼 등이 있음(올림픽 별 실시 종목 상이)



자료: 국제스포츠정보센터

김민지 기자. 안예지 인턴 20240624

역대 하계 올림픽 선수 규모, 구기종목 출전 현황

어제 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 수가 15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선수 50명 이후 최소 규모다.

단체 구기 종목에서는 여자 핸드볼만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양희영, 역대 한국 선수 첫 30대 여자 골프 메이저 챔피언

양희영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30대 나이에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왕좌에 올랐다. 양희영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서매미시에서 끝난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2위 선수들을 3타 차로 제친 양희영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1989년 7월생인 양희영은 만 나이로 34세다. 2018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앤절라 스탠퍼드(미국)가 40세 나이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여자 골프에서 나온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또 이번 양희영까지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것이 35회인데 이 가운데 만 30세를 지나 메이저 트로피를 품에 안은 것은 양희영이 처음이다. 종전 한국 선수의 최고령 메이저 우승 기록은 2020년 9월 ANA 인스피레이션 이미림이었다.

이미림은 1990년 10월생으로 이때가 만 29세 11개월이었다. ANA 인스피레이션은 원래 봄에 열리지만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을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양희영은 또 75번째 메이저 대회 출전에 첫 승을 거둬 76번째 도전에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스탠퍼드 다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양희영은 이 대회 전까지는 2012년과 2015년 US여자오픈 준우승이 메이저 최고 성적이었다.

2014년 같은 대회에서는 3라운드까지 미셸 위(미국)와 공동 선두였지만 4위로 대회를 마쳤고, 준우승한 2015년 US여자오픈에서는 3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1위였다가 뒤집혔다. 이번 우승으로 양희영은 세계 랭킹 15위 안에 들게 될 것이 유력해 7월 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도 사실상 따냈다.

그렇다고 양희영을 '대기만성형' 선수로만 보기도 어렵다. 10살 때 골프를 시작한 그는 호주에서 골프 유학을 했고 만 16세 때인 2006년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대회인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LET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만 20세가 되기 전인 2008년에도 LET에서 2승을 더해 통산 3승을 달성하는 등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남반구의 미셸 위'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입문한 양희영은 2013년 한국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홀수 해마다 혼다 타이랜드에서 우승하며 '태국의 최강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6승을 달성한 베테랑이지만 위기도 많았다. 2015년과 2019년 태국 대회에서 우승할 때 모자에 스폰서 로고가 없었고, 지난해 11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과 이번 우승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주위에서 '우승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는 시선을 보낼 때마다 마치 보란 듯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 셈이다.

특히 지난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후에는 "은퇴도 고민했다"고 털어놨지만, 우승 상금 200만 달러(약 27억8천만원)를 받으며 30대 들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또 이번 대회 역시 올림픽 출전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마지막 대회에서 '메이저 우승' 대박을 터뜨리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에 나가는 영예까지 누리게 됐다.

모자 앞면에 '미소 무늬'를 새기고 달리는 양희영의 '화려한 30대 질주'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골프 팬들의 기대감도 더 커져만 간다.

경기단체연합회, "유인촌 장관이 체육계 분열 조장"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2024 파리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를 분열하려는 의도의 발언을 했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단체연합회 82개 회원종목단체는 24일 성명을 내고 유 장관이 나흘 전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각 종목 단체가 스스로 중장기 비전을 갖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 체계도 확실히 개편하겠다"고 한 발언에는 실상 예산 지원을 통한 종목 단체 통제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의 언급은 대한체육회가 가맹 종목 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대한체육회가 현재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체육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 단체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철폐 정관 개정 요청과 문체부의 승인 거부, 스포츠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찬반 논란 등 올림픽 후 폭발력 있는 사안을 두고 양측은 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오는 7월 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석하지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피겨 국대가 후배 성추행... 불법촬영한 선수도 적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달 대표팀의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동료 선수 B씨와 함께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게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진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음주 건과 별개로 남자 대표 선수 C씨가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해 규정 위반을 한 것과 동시에 A씨가 C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같이 있던 B씨는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맹은 음주와 성추행을 이유로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B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 C선수는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두 여자 선수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되고, 특히 A 선수의 경우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징계를 받은 B씨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고, 3년 징계를 받은 A씨는 아직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이 파견되는 이유



오는 24일부터 제주 지역 65개 고교 운동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가 10명의 인권감시관을 파견한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관은 고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고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훈련장 실제 상황 모니터링, 시설 방문을 통한 훈련 장소의 공간 배치, 운동부 기숙사 시설 및 공간 확인, 심층 상담을 통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보고서를 보낸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 지역 인권침해 관련 접수 통계가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별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146개 운동부가 있는 서울은 7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져 접수율이 52%에 달했다. 인천도 62개의 운동부가 있는데 인권침해 관련 사건 접수가 33건에 달해 약 53%를 기록했다.

리니지M 지금 플레이

그렇지만 제주에는 65개 학교에 71개의 운동부가 있지만 정작 사건 접수는 5건에 불과해 겨우 7%에 그쳤다. 20% 내외가 일반적인 접수율인데 제주 지역만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제주 지역의 사건접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지역 고교 운동부의 인권침해가 다른 곳에 비해 적거나 아니면 지역 특성상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피해 당사자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8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문 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수도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내년에는 이런 인권감시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생각이다.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도 바로 감독과 팀닥터, 동료 선수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입다가 숨진 최숙현 선수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을 둘러싼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이를 위해 전문조사관을 현행 8명에서 내년 1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와 심의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인원과 개최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이는 2022년 212건과 242건이던 인권침해와 비리 건수가 2023년 262건과 368건, 올 1분기 70건과 7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그동안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으로 인권침해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직 내분이 일어난 적도 있다. 그렇지만 8월 한층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의 선봉에 서게 됐다. 고교 운동부의 인권침해나 장애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적나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스포츠 윤리센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와 공동마케팅 계약 체결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624/125593034/1>

속초시,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39832?ref=naver>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개최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406250540003&sec_id=530101&pt=nv

김해 진례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두고 체육인 '마찰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2415365047582>

대한장애인체육회·용인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개관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96129&plink=ORI&cooper=NAVER

'제10회 천안시장애인체육대회' 성료...선수 1300여 명 참여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09428.htm>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의 날' 맞이 기념행사 개최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6240198>

강원교육청-강원FC '학교 체육 활성화' 업무협약

<https://www.news1.kr/articles/5456792>

[담담한 만남]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체육인 인권보호 앞장"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4061852064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